

부곡온천과 기노사끼온천 관광지 가로경관 비교분석

- 색채 분석을 중심으로 -

김 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Comparative Study on Street Landscape of Bugok Hot Spring and Kinosaki Hot Spring - Focused on Color Analysis -

Kim, Hyun

Korea Culture & Tourism Policy Institute

ABSTRACT

The tourism sites and attractions of South Korea in many ways have little specialties in their image due to the local development plan's uniformed way of designing and improving landscape. The lack of specialties in tourist sites and attractions have caused displeasure from the local residents, as the sites don't characterize the locals as attractively and appealingly as is the potential. There have been no research or studies on the scenic effect on tourism or resort development, thus producing an urgent call for local authorities to develop planned landscapes of local sites.

This study compares *Bugok Onchon* (hot spring), whose image hardly differentiates itself from the others, with *Kinosaki Onsen* (hot spring). Bugok Hot Spring, which is the case study of this report, has recorded a steady decline of visitors due to a result of uniformed development planning. In the case of Kinosaki Hot Spring, scenery development, however, has made a breakthrough in tourist increase despite its no-so-easily-accessible location. The study assumes that scenery effects changes in promoting local tourism, thus analyzing and comparing the two hot springs to unearth critical factors in tourist site development, as well as viewing the present state of Bugok Hot Spring for further study. Furthermore, the study provides tourist site developers with a guideline of the two comparative Hot Spring cases.

Investigations and analyses are mainly focused on colors, which are important factors in making underlying images of tourist sites, and the comparison of Bugok Hot Spring with Kinosaki Hot Spring. Bugok Hot

Spring shows the influences of accent colors as well as a variety of color combinations and similarities of color tones. Kinosaki Hot Spring shows a combination of naturally-generated colors its own scenic beauty by trimming the landscape.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wo hot springs, Bugok (boulevard) uncovers a typical case of Korean local landscape planning, even with the well-known tourist attraction "Bugok-Hawaii", and calls upon a new, serious landscape-improvement plan to increase visitors.

Key Words: Tourism Sites, Local Tourism, Sequence, Landscape Analysis, Color Analysis

I. 서론

우리나라의 관광진흥은 대부분 관광지와 관광특구 등의 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광지 자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진흥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족하였다(한국관광연구원, 2000). 특히, 객관적 실재보다 이미지에 의해 방문이 결정되는 '이미지 중시 소비 행태'가 나타나는 현대 관광의 특성상, 관광지 경관은 잠재 관광객들의 관광 목적지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 관광지의 불편한 인프라, 낮은 인지도 등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광 도시는 양적 성장에 맞춘 도시 정책 즉 도시 계획에 따른 경제 성장을 우선 시하는 일관된 도시 경관 정비 방향을 지향함으로써 관광 도시 이미지가 획일적인 것은 물론 각 지역이 표방하고 있는 특성이 표출되고 있지 않아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환영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김현, 2003).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광지의 경관 관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경관 관리를 위한 계획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부터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¹⁾의 지침에서는 경관 개선 부문 중 도시 색채 개선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건축물 형태 및 기능 개선 사업이 대부분으로, 색채 관련 정비 내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색채가 관광지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었으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

초 연구의 부족에 따른 결과이며,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현,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경관의 특성을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요소의 하나로 전제하고 경관 요소 중 색채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관광지 경관의 실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향후 관광지 경관 개선 지침 마련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지 선정

한국 관광지 가로경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곡온천과 기노사끼(城崎) 온천을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먼저, 부곡온천의 경우 한국 관광지의 전형적인 공간구조 및 경관상을 형성하고 있으며(임화순, 1996; 김현, 1999),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로서(경상남도, 2005) 경관 실태 조사·분석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부곡온천의 경관 실태를 보다 명확히 도출하고자 비교분석을 위한 대상지로는 일본 기노사끼온천을 선정하였다. 기노사끼(城崎)온천의 경우, 불리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높이 및 색채 규제 등의 외관디자인 지침 제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경관 정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경관 향상 및 관광지 이미지 확보 등을 통하여 관광지 활성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下

村彰男, 1989).

즉, 경관 보전·정비가 성공적으로 실현된 기노사끼 온천과 한국의 전형적인 관광지 경관을 보유한 부곡온천의 색채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부곡온천의 색채 경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부곡온천의 경관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가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관광지 경관 개선 계획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각 관광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부곡온천 개요

경상남도 창령군에 소재하는 부곡온천은 1973년 개인 사업자의 온천 발견 이후 구마고속도로의 개통과 88고속도로의 개통 등의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온천 개발이 급격히 이루어진 곳이다. 1977년 부곡온천의 국민관광지 지정 이후 토지구획 정리사업(203,600m²)을 시작으로 온천지가 형성되었으며, 1982년 부곡 하와이 건설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숙박 시설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1983년의 지구내의 온천공 개발 금지령에 따라 개발 붐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6년의 부곡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 영산~부곡간 도로 확장, 부곡~밀양간 도로공사 등의 활성화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지구내 용도변경 금지에 따라 '녹지'내 농협연수원, 콘도미니엄, 골프장 조성 등의 부분적인 개발만이 진행되어 왔다.

1997년 1월 부곡면 거문리 일원의 4.82km²가 부곡온천 관광 특구로 지정되어, 숙박시설 26개소, 상가시설 21개소, 종합 휴양 시설(부곡 하와이) 1개소, 골프장 1개소 등이 조성되어 있다. 연간 관광객수는 1977년 3천명으로 시작하여 1983년은 365만명, 1995년은 405만명 등으로 매년 400만여명이 방문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현재 350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관광객 감소 요인으로는 관광지 개발이 약 30여년 경과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고 일반 도시와의 차별성이 없는 일상적인 공간으로 관광객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령군과 경상남도는 기존의 노후화되고 관광 매력을 상실한 관광지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

광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핵심사업 중 하나가 경관정비 사업이다(경상남도, 2005).

2) 기노사끼온천 개요

근세 시대에는 뛰어난 온천 약효로 관서 지방의 대표적인 온천이었으나, 1950년대 이후 온천관광지에 대한 이용행태가 급격히 바뀌면서 교토(京都)에서 JR로 2시간, 자동차로 3시간 소요 등의 열악한 접근성으로 방문객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온천수가 부족하고 지역의 50%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개발 제한 요소가 많은 지역이다.

이후, 1925년 복단대지진 이후 온천탕 복구 사업을 계기로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유지 일부의 도로화, 소토유(外湯) 및 공공 시설 정비 등의 관광 도시 활성화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소토유 보전·정비를 통해 숙소내 온천인 나카유(內湯)가 제한됨에 따라 저층, 소규모의 형태가 유지되었으며, 특히 소토유를 이용하기 위해 유카타(湯衣)를 입은 이용객의 모습이 거리에서 보여지는 등 일본 온천 관광지에서 사라져가는 일본 전통의 온천 경관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통 경관 보전·정비로 관광객수가 꾸준히 상승하였다.

그러나, 일부 건물의 노후화, 외부 자본의 진입 등으로 신축의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노사끼온천은 제2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기노사끼온천은 최대 관광자원인 거리 경관의 보존을 위하여 경관 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색채, 형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즉, 도시 경관의 일관된 이미지 전달과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6가지 측면의 구체적인 항목 즉, 건물의 높이, 지붕의 형태 및 재질, 외벽의 색채·재질 및 외벽의 위치, 식재와 문·울타리 등의 조성, 외부로 노출되는 설비 기기 지침, 옥외 광고물·차양 등의 설치 지침을 마련하였다. 또한 경관의 거점이 되는 교량, 역,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썸지 공원(pocket park) 정비는 물론 벤치, 공공전화박스 등의 가로 시설물(street furniture)과 안내판, 안내지도 등의 공공사인 디자인 등의 경관 정비를 통해 전체 경관의 조화와 더불어 「걸으면서 경관을 즐기는」 관광지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기노사끼온천이 속한 효고현은 싱글 사인(single sign) 운동, 트윈 트리(twin tree) 운동 등을 실시한

상가연합회, 지역단체, 주민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兵庫縣, 1996). 이러한 지속적인 경관 보전 및 정비의 실현으로 오늘날에는 오히려 일본 굴지의 주요 온천 관광지가 되어 있다(下村彰男, 1989).

2. 조사 및 분석 방법

관광지 공간 중 이용자의 경험률이 가장 높으며,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공간이 가로(윤승로, 2003)라는 점에 착목하여, 각 관광지의 주요 가로 1개소를 선정하여 색채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下村彰男(1989)의 온천지의 가로공간 분류에 의거하여 각 도시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가로로 선정된 부곡은천의 부곡 하와이 주변 가로, 키노사끼 온천의 大谿川가로(김현, 1999)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부곡은천의 경우 7월 10일, 기노사끼온천은 9월 23~24일 실시하였다. 또한 일출 3시간 후부터 일몰 3시간 전 사이에 실행하였으며 조사일의 날씨의 모두 맑았다. 색채 조사는 JIS 표준색표를 이용한 시감측색법(視感測色法)을 적용하였으며, 비색(比色)은 고명도(백), 중명도(회색), 저명도(검정)의 3종류의 마스크를 사용했다. 먼저, 가로 양안의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건축물을 중심으로 플라로이드 사진을 촬영하고, 측정하고 싶은 부분에 마스크를 대고 관찰한 후 표준색표와 비교하여 값을 구하였다. 2인 1조로 측정값을 구한 후, 측정치에 오차가 있을 경우에는 측정을 재실시하였다. 측정을 완료한 후에는 측색값을 조사용 칼라코드 표를 이용하여 칼라코드 중분류로 재분류하였다. 칼라코드 중분류의 중축은 색조, 횡축은 색상을 나타낸다.

색채 분석은 기초색(base color)과 강조색(accent color)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다. 기초색(基調色)은 거리 전체의 시각적 효과를 지배하는 색으로 가로경관에 있어서는 가로 양측에 위치하는 건물의 외벽, 지붕 등 거리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이며, 강조색은 소량이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색으로 가로의 간판, 차양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가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벽면과 지붕의 색을 기초색으로, 간판과 차양을 강조색으로 설정하였다. 단, 한국의 대상 가로는 근대 건물이 대부분인 관계로 거의 나타나지 않



그림 1. 부곡은천



그림 2. 기노사끼온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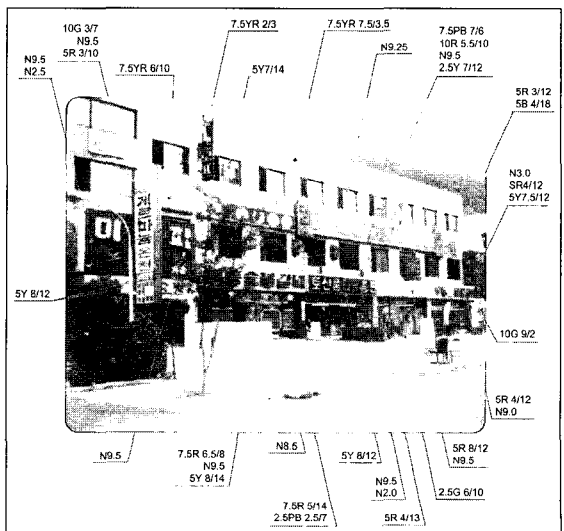


그림 3. 조사시 촬영한 플라로이드 사진과 측색값

는 지붕, 차양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III. 분석 결과 및 고찰

부곡온천 조사 가로의 기초색의 경우, 색상은 백색 계열, 갈색 계열, 무채색 계열 등이 대부분으로 특히 무채색 계열이 66%를 차지하였으며, 색조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산재하여 나타났다(표 1 참조). 일상적인 도시 상업 지구에서 나타나는 색채와 거의 유사한 극히 일상적이며 단조로운 구성이라 하겠다. 이러한 단조로운 색채 구성은 통일성을 주기보다는 지루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강조색은 빨강, 오렌지, 노랑, 초록, 파랑 등 총 14종류의 255색상이 추출되었다. 특히 이중에서도 빨강, 파랑, 노랑으로 대표되는 3원색의 비비드 칼라(vivid color)가 전체의 33%로 집중적으로 추출되었다(표 2 참조). 간판의 특성상 바탕 또는 글씨에 주로 사용되는 무채색을 제외하면 비비드 칼라가 49%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비비드 칼라의 사용은 강한 자극성으로 인해 오히려 간판의 시각 전달 효과를 감퇴시키며, 장소의 이미지를 몰개성화하고 진부한 공간으로 전락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키노사키 온천 조사 가로의 기초색으로는 벽면과 함께 일본의 전통 건물의 집적에 의해 지붕이 나타났다. 먼저, 벽면의 색채를 칼라코드 중분류에 적용한 결과, 분산과 집중이 동시에 나타났다. 분산된 칼라의 경우, 채도 3~4 정도의 선명한 색채가 나타나고 있으나 파랑(pale sky), 녹색 이외에서는 자연색인 R~Y 범위의 자연계 색상이 대부분이었다. 집중되어 나타난 색의 색상은 갈색 계열, 무채색 계열 범위였으며 색조는 저채도 영역으로 70%인 117색이 이에 해당되었다(표 3 참조). 이는 목조 건물의 집적에 따른 결과로, 이러한 색상의 집중은 경관의 통일성과 더불어 이미지 전달에 유의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지붕 색채의 경우에는 어두운 회색 및 준무채색계 색조로 나타났다. 색상은 R과 GR 계열 범위, 색조는 매우 한정된 저채도 범위에 집중되어 나타남으로서 경관의 통일감을 부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표 4 참조). 특히 검정색, 회색의 기와 또는 동판 등 일본 고유 소재를 통해 지역성, 전통성을 표출하고 있다 하겠다.

표 1. 부곡온천의 기초색 분포*

명도	대분류	색상														N
		PI	R	O	BE	Y	YG	G	BG	S	LA	LI	RP	N		
					BR	OL	OLG	4	4	B	1					50
					4	1				DB		V	P			
p(7)	1								•							
lt(4)	1								•							
bt(2)																
v(1)																
dp(3)																
d(5)	2								•		•					
dk(6)	2				••											
ltg(8)																
g(9)	2				•	•										
무채색	W	15							•							•
	ltGY	3														••
	mGY	2														••
	dkGY	1				•										
	BK															

*: • 1, •• 2~4, ••• 5~9, ● 10 이상

표 2. 부곡온천의 강조색 분포*

명도	대분류	색상														N
		PI	R	O	BE	Y	YG	G	BG	S	LA	LI	RP	N		
					1	29	1			B	39					
		5	34	15	BR	OL	OLG	24	1	DB	5	V	P	5		85
					4	1						2	3			
p(7)	7	•			•	•										
lt(4)	4				•	•					•					
bt(2)	27	•	••	••		••	•	••			•					
v(1)	83			••												
dp(3)	25		•••	•		•		•			•••					
d(5)	10	•				•					•	•	•	•		
dk(6)	11															
ltg(8)																
g(9)	3					•					•					
무채색	W	41														
	ltGY	16														•
	mGY	5														••
	dkGY	5				•										••
	BK	19														

*: • 1~3, •• 4~9, ••• 10~14, ● 15~19, ● 20 이상

표 3. 기노사끼온천의 벽면 기초색 분포*

대분류	PI	R	O	BE		Y	YG	G	BG	S	1	LA	LI	RP	N
				4	25										
명도	17	9	3	BR	OL	OLG	10	4	B	2	DB	1	V	P	50
				67											
p(7)	17			••	●			••							
lt(4)	7			••				••							
bt(2)	4	•	•						••						
v(1)															
dp(3)	3		••						•						
d(5)	32		•	•	●	•••		•	•	•					
dk(6)	16				●			•		•					
ltg(8)	5				••	•									
g(9)	16		••		●	•		••							
무채색	W	40				•••									●
	ltGY	13													●
	mGY	11													●
	dkGY	13		•		•••									∞
	BK														

*: • 1, •• 2~4, ••• 5~9, ● 10~19, ● 20 이상

표 4. 기노사끼온천의 지붕 기초색 분포*

대분류	PI	R	O	BE		Y	YG	G	BG	S	1	LA	LI	RP	N
				BR	OL										
명도	17			BR	OL	OLG			4	B	18	V	P	9	
				44	1				DB						
p(7)															
lt(4)															
bt(2)															
v(1)															
dp(3)															
d(5)															
dk(6)	4				••										
ltg(8)	3				••										
g(9)	11				•••	•									
무채색	W														
	ltGY														
	mGY	6													∞∞
	dkGY	63		●		●				●					∞
	BK	2		••											

*: • 1, •• 2~4, ••• 5~9, ● 10~14, ● 15 이상

한편, 강조색으로는 간판과 차양이 나타났다. 간판의 경우, R계열부터 청색 계열까지 다양한 색상과 색조로 분포되어 나타났으나, 일본풍의 흑백 한자 간판이 전체의 67%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기초색이 연출하는 통일성, 전통성을 저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표 5 참조). 이에 반해, 차양의 경우 43개로 소수 나타나고 있으나, 노랑, 초록, 주황 등의 전달력이 높은 선명한 색상 분포로 거리경관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며, 전체적인 경관과의 부조화는 물론 기노사끼온천의 주된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고찰되었다(표 6 참조).

이러한 부곡온천과 기노사끼온천의 색채 분석 결과를 기초색과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비교·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고찰되었다. 먼저 기초색의 경우, 부곡온천은 무채색 이외의 색채는 종축(縱)으로 분포하였다. 즉, 색상의 다양성, 색조의 유사성이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기노사끼온천에서는 전통적인 목조 건물의 집적으로 인하여 브라운 색상의 유사성, 색조의 다양성이 나타났다. 특히, 지붕 색채의 경우, 색상, 색조가 모두 유사한 영역에 분포함에 따라 경관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고찰되었다.

표 5. 기노사끼온천의 간판 강조색 분포*

대분류	PI	R	O	BE		Y	YG	G	BG	S	1	LA	LI	RP	N
				BR	OL										
명도	17	10	7	BR	OL	OLG	3	2	B	3	DB	V	P	1	108
				7	2										
p(7)	7			••											
lt(4)	1											•			
bt(2)	7	•	•	••		••									
v(1)	14		•••	••				••							
dp(3)	2		•									•			
d(5)	15			•••	•••			••	••						
dk(6)	2														
ltg(8)															
g(9)	4		•		•	•								•	
무채색	W	33													●
	ltGY	10													●
	mGY	11													●
	dkGY	17			•										●
	BK	38													●

*: • 1, •• 2~4, ••• 5~9, ● 10~19, ● 20 이상

표 6. 기노사끼온천의 차양 강조색* 분포

대분류	PI	R	O	BE	Y	YG	G	BG	S	I	LA	LI	RP	N
명도			8	1 BR	12 OL		4	7	B DB	7	V	P		9
				1										
p(7)	6			•	●									
lt(4)	1								•					
bt(2)	3				••		••		•					
v(1)	9		•		•		••		••					
dp(3)	8		•						••					
d(5)	5				•				•					
dk(6)														
ltg(8)														
g(9)														
무채색	W	4							•					•••
	ltGY	2												••
	mGY	3												•••
	dkGY	1			•									
	BK	1												•

*: • 1, •• 2, ••• 3, ● 4, ●● 5 이상

강조색의 경우, 부곡온천은 색상, 색조가 매우 다양하고 특히 빨강, 파랑, 노랑의 비비드 칼라가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거리 경관 이미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기노사끼 온천의 간판 또한 색상, 색조가 다양하게 나타나 무채색이 압도적으로 다수 분포하여 전체 경관의 기초색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차양의 경우에는 매우 선명한 색채로 거리 경관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고, 향후 경관 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IV. 결론 및 제언

현재 우리나라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 중 경관 부문은 “관광지의 어메니티를 증진하고 볼거리 연출 및 미적 조화를 추구한다는 목표 하에 경관의 색채에 대해서는 지역 이미지에 적합한 자연스럽고 쾌적한 칼라 톤의 색상을 적용한다”(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의 전체적인 분

위기를 지각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색채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경관 도시로 일컬어지는 기노사끼온천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부곡온천의 경관 특성을 명확히 하고 향후 관광지 경관 계획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곡온천 경관의 색채 특성은 경관 중에서 강조색의 영향력이 크고 기초색의 경우, 색상의 다양성과 색조의 유사성이 나타났다. 본 조사 가로가 부곡하와이라는 핵심 위락 시설이 존재하는 가로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경관 색채의 분포가 부곡온천의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색채에 대한 제정비가 절실함이 재확인되었다.

이에 비해 기노사끼온천의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경관을 지배하는 색채가 구성되었다가 그 후에는 이에 가까운 색, 형태로 경관을 규제함으로써 기초색이 경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고찰되었다. 물론 기노사끼온천은 자원·입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경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관광도시이며 온천 관광지로서의 역사와 각국의 관광 행태 간의 차이는 명백히 존재하나, 기노사끼 온천 경관의 분석 결과는 경관 정비 부문은 물론 관광객의 관광 체험 폭을 넓힌다는 의미로도 향후 한국 관광지 경관 계획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경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색채에 국한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관광지 경관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에는 형태, 가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전형적인 관광지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부곡온천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부곡온천이 관광지 경관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많은 관광지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 1. 문화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선정 대상으로 관광 자원성은 있으나 시설 노후화 및 관광 매력도를 상실한 기존 관광지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모델을 제시하고, 획일화된 관광지 조성·개발·이용행태 등을 지양하여 관광지 특성에 맞는 정비·관리·운영·홍보 및 연계관광지 개발, 관광 프로그램 다양화 등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자연환경 등을 고려한 시설 및 경관 개선, 지역 관광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 개발을 강화하여 관광지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것이다. 2005년도에는 강원도 영월의 '고씨동굴'과 2006년도에는 전라남도 영암의 '영산호'가 그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인용문헌

1. 경상남도(2005) 문화관광체육분야 로드맵.
2. 김현(2003) 관광도시 경관정비 방향 고찰연구. 도시디자인학회 1차 국제학술세미나자료집, pp. 10-18.
3. 윤승로(2003) 도시환경색채분석을 통한 가로시설물 색채배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임화순(1996) 근대한국의 온천관광지발전과정에 관한 사적 연구. 동경공업대학 박사학위논문.
5. 한국관광연구원(2000) 도시관광 진흥방안 연구.
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관광지 리모델링 활성화 전략.
7. 金炫(1999) 韓國と日本の温泉地景觀評価に関する研究. 東京大學演習林報告書 102: 1-69.
8. 兵庫縣(1996) 城崎町・城崎温泉地區景觀ガイドライン.
9. 下村彰男(1989) 温泉地街路空間の多様性に関する研究. 日本觀光研究者連合 4: 77-84.

원 고 접 수: 2006년 11월 21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6년 12월 21일

3인인명 심사필